월요논단

‘한국캐미호’의 이란 억류가 주는 교훈

남 동 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새해 시작과 함께 중동의 바다에서 몹시도 염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1월 4일 오전 10시(한국 오후 3시)경 우리 국적 선박 ‘한국캐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돼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됐다는 내용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UAE(아랍에미리트) 사이의 바다로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을 연결하며, 세계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 등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이 해협을 경유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다이다. 우리나라도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란은 우리 선박을 나포해 억류한 이유가 해양 환경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먼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개발 관련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힘겨루기’ 차원에서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한 것이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로 우리정부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이란 산 원유 수출 대금 70억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영국이나 UAE 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나포 한 이란의 과거 전력이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선박이 해상에서 나포돼 억류된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뿐 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 해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이 매우 특별한 것은 나포와 억류의 주체가 해적 등의 소행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이다. 해외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외교·경제·국방 등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예방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군의 입장에선 나포 직후 청해부대를 현지에 급파했지만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해부대의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 줄 필요는 없는지, 작전 구역 등 운용 상 개선·보완 사안은 없는지 검토해 발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해양강국 건설’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바닷길이 막히고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먼 중동도 정세가 불안정하지만 우리의 주변 바다가 더 위험해 보이니 말이다.

계절은 바뀌어 봄이 오고 있지만 ‘한국캐미호’는 아직도 억류 중이다. 선박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풀어주기로 했지만 일부는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한다.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잊혀 가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외교적 수단 등을 총 동원하여 우리 선박 석방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모항으로 하는 제7기동전단 소속 함정과 장병들이 외롭고 거친 중동의 바다에서 오늘도 묵묵히 코로나와 또 해적 등 불특정 위협 세력과 싸우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에게 제주 도민들의 사랑과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열린마당

물 부족 문제 해결하는 물 재이용 실천

이 준 호
제주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이 사라진 제주도는 상상할 수 없다. 동식물도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무도 생활할 수 없는 황폐화 돼버린 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 재난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라 바로 우리 제주의 물 부족 문제일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물 사용량의 97%를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특용작물과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지하수 함양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지하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가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것 바로 ‘물 재이용’이다. 물 재이용은 자연환경과 생활에서 나오는 빗물, 용천수, 오수, 하수를 재이용 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이용하고 관리·처리해 깨끗한 물을 농업, 공업, 생활, 조경 등의 용도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원은 마르지 않아 끝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 순환자원으로 물 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

지하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와도 같은 자원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자원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우리의 ‘생명수’라 불리고 있다.

물 재이용은 제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물 재이용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정세균 국무총리 4·3평화공원 참배

대선 출마여부는 즉답 회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회피해 눈길.

1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정 총리는 내년 대선 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4·3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배를 하고 제주도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

정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과 참배하고 방명록에 “4·3의 숭고한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제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 고대로기자

제주항공 개인정보 유출

○…제주항공이 최근 사이버 공격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유의사항을 안내.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11일 사이 SITA의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시스템에 저장된 고객들의 결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SITA에서 사고 인지 후 전문가와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원인분석 등을 진행 하고 있다”며 “유출된 카드의 발행사와 공조해 고객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완료 했다”고 설명. 이태윤기자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출범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설정과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워킹그룹이 지난 19일 오후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착수.

신규 위촉된 15명의 제4기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위원들은 내년 12월말까지 약 2년의 임기동안 읍면별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마을발전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

이날 안동우 시장은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마을별 특색을 살리는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워킹그룹 활동에 대한 기대와 활약을 당부. 이윤형기자

사설

제주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백수’로 내몰리고 있어서 그렇다. 경제생활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취업 문턱에 가로막혀 좌절감을 맛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주도가 청년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년정책을 내놔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총 619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정책분야에 88개 사업을 펼친다. 우선 일자리분야는 36개 사업에 241억원을 투입해 각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주거분야는 7개 사업에 144억원을 들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분야는 16개 사업에 178억원을 쏟아서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복지·문화분야는 10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해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가 청년정책을 여러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일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55.7%로 2019년(58.2%)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실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57.4%)보다도 낮을 정도다. 오죽하면 ‘취업 빙하기’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많은 20대 청년들이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의 일꾼인 청년들이 떠나는데 제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한라산 예약제, ‘단기 성과’ 넘어야 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탐방객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기대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객 급증에 따른 성판악 갓길 심각한 주차난과 쓰레기 발생량 등이 확 줄었다. 시행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 효과들을 내는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이제 단기 성과를 넘어 ‘한라산 보호’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할 때다. 예약제가 기존 정상코스만이 아닌 어리목 영실코스까지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한라산 보호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기에 그렇다.

올 1월 본격 추진한 탐방예약제 분석 결과 성판악 갓길 불법 주·정차, 쓰레기, 환자 등의 고질적 문제 해소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성판악 탐방객은 2월 기준 3만2834명으로 작년 동기 5만5105명보다 60% 가량 확 줄었다. 과거 주말 평균 300~400대에 이르던 성판악 갓길 주·정차문제도 해소돼 이용객 안전을 확보했다. 성판악코스 환자 발생도 지난해 2월 229건서 올해 68건으로 급감했다.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 1~2월 2.9t에서 올 예약제 후 1.5t으로 46% 이상 줄었다. 예약제가 작년 2월 첫 도입후 코로나19로 12일만에 중단됐다가 올 1월 재개되는 우여곡절끝에 거둔 성과라 더 돋보인다.

그러나 탐방예약제의 완전한 정착과 한라산의 환경자산 보호를 위해선 전면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 많은 등반객이 오가는 어리목 영실코스도 예약제를 해야 적정 탐방객 수용,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도민과 관광객들은 한라산을 예약으로만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제주엔 올레길 둘레길 오름 등 수많은 ‘길’을 예약없이 즐길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한라산에 사람의 발길을 줄여 세계적 청정 영산으로 길이 남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사건번호
2020재고합21 국방경비법위반
• 피 고 인 이성로

위 피고인은 국방경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공시함.

2021. 3. 22.

재판장 판사 장 찬 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연주현씨 영신(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2일

아 들	김성현		
	귀현	며느리	고화선
	봉현		고인경
딸	김인아		
	명아	사 위	김종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창인(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2일

아 들	고승효	며느리	허민숙
	승희		김태정
	승현		백지현
딸	고명신	사 위	김남용
	명옥		백윤철
	명진		김준범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부 고

양대진 아버지 **제주양공 상용(무공수훈자·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0일 07시 28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21일(일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22일(월요일) 오전 7시
▶빈 소: 위미의례회관(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822)
▶장 지: 제주 국립묘지(예정)

아 들	양대진	며느리	임옥희
	대원		김미영
	대형		백영실
	성진		부성애
	수진		고충석
딸	양순자	사 위	황연규(故)
	순옥		고광헌
	순복		김영민
장 손	양훈준		

※ 연락처 : 양대진 010-6349-2431
양수진 010-8582-6798
고광헌 010-9488-0001
김영민 010-3699-4956

부 고

부성훈 아버지 **제주부공 현식(前 농협 제주도지회장·향년 85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9일 18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2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23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덕천리 선영

부 인	양인순		
아 들	부성훈	며느리	김진영
	용훈		이동희
	우훈		오은경
손 자	부준요		
	준영		
	준혁		
손 녀	부채은		

※ 연락처 : 부우훈 010-3698-360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